

# 바라볼 것인가' 지상중계

# 돌아오게 해야'

노력하겠다.

△최준헌= 농협 마트에서 일하다 보니,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군 부대 젊은 부인들을 못본다. 공무원들도 거의 속초 쪽으로 나가 있는데, 자식들 때문에 나간다고 하지만. 공부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속초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만도 없다. 친구가 속초에서 학원을 하는데, 고성에 와서 해보라하면 사람이 적어서 안 된다고 한다. 공무원들을 적극 고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 황화선 간성재래시장 변형회장 남께서는 말씀을 거의 안하시는데, 어려운 점에 대해 토로해 보시죠. 장날에 공무원들이 장보기 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황화선=재래시장은 전에는 그나마 군인 가족들이 많이 찾았는데,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다. 장날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외지인들이 전부다 팔고 간다. 지금은 장날이나 평일이나 차이가 없다.

△이덕용=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이 주소를 고성에 두고 살라고 해도 나가서 사는 것은 문제지만,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나가는데 통합이 되면 다 나간다고 봐야 한다. 의정연수원이 토성면에 위치해서 속초로 많이 가겠지만, 의정연수원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김에 송지호도 가보고 화진포도 가볼 수 있어서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다보면 이곳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면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의 활동 방향

△사회= 이제부터는 앞으로 속초지역의 건의활동에 맞춰 어떤 활동을 해야할지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속초 지역에서 통합을 건의하는 행위 자체는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이면 전국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접수된 건의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 30일까지 개편추진위원회에서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되고, 이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성지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이영일= 건의가 올라가면은 유권자의 2/3 이상이 투표를 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통합이 됐을 때 실과 득이 무엇인지를 홍보해서 통합 반대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속초시가 통합을 원하는 애다는 심정은 알지만, 양양군과 인제군 변형회장들과 정보도 교환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 우리 고성군변형회는 어제 전부 반대하는 쪽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속초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빚을 갖고 있는데, 속초시와 고성군이 예산이 거의 비슷하다. 통합되면 우리가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본다.

△함명준=사실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홍보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통합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 통합이 되면 우리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나가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동균= 역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리고 발전 가능성으로 봐도 통합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찬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무엇보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또 워낙 성장 동력이 약하다 보니 찬성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시점에서 통합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논란보다는 먼저 고성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일부 통합 찬성 여론은 붉은 녹듯이 소리없이 사라질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군인아파트와 민간아파트를 신축해서 군인들과 현지인, 속초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돌아올 수 있게 정주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또 외지에 있는 인력이나 기술, 자본, 연구, 생산시설, 교육 시설 등을 유치해 지역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타 지역에서 모방할 수 없는 브랜드 가치를 이용한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급한 것은 급한대로, 단기와 중장기 계획은 그 계획대로 고성군민에게 실천 가능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고성군민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시군 통합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기로 하고, 앞으로 또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고성신문사 주최 긴급좌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최광호·원광연 기자

### 설악권 통합 관련 주요 활동 일시

- 10월 6일 : 속초시원로회와 속초상공회의소 '설악권 각 시·군 지도자 여러분과 주민에게 드리는 호소와 제언' 기자회견 개최.
- 10월 27일 : 속초지역 사회단체들 '속초시 설악권 4개 시·군통합 추진위원회의' 개최.
- 11월 11일 : 양양 범군민통합결사반대투쟁위원회 발족
- 11월 14일 : 인제 설악권 광역시(4개시군) 인제군반대추진위원회 반대 성명서 발표.
- 11월 18일 : 속초시 통합추진위원장 채용생 속초시장에게 주민 2,480명이 서명한 통합건의문 서명부 전달.
- 11월 23일 : 고성신문사 주최 '속초지역의 통합 건의,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 긴급좌담회 개최.
- 11월 24일 : 양양 범군민통합결사반대투쟁위원회 발족식 개최. 이태희 남대천보존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추대.
- 11월 25일 : 고성군의회 홍봉선 의원 '4분 자유발언' 통해 반대 입장 표명.

## “시청사 위치 등 약속 지켜지지 않아” 한국일보 21일자 보도 … 통합지역 진통 계속

정부가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시군 통합이 곳곳에서 '통합 시청사 입지 갈등', '지역 역차별'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일보는 지난 21일자 보도에서 “통합한 시군들은 하나같이 심각한 지역 갈등에 휩싸여 있으며, 가장 빈번한 분쟁은 시청사 입지 선정 문제”라며 그 이유로 통합 시청사 입지를 통합 자치단체에 일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1995년 승주군과 통합한 순천시도 16년이 되도록 통합 시청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해 통합한 평택시와 송탄시의 경우 시청은 평택, 시의회는 송탄에 두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

또 1998년 통합한 여수시(여수시-여천시-여천군)는 3자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13년째 시청사를 마련하지 못해 김중석 시장이 옛 시청사를 순회하며 결재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들 3개 지자체가 네 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는 등 천신만고 끝에 통합에 성공해 찬사를 받았지만, 이후 실익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당시 여수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시청사 여천지역 배치 △의원정족수 동일구성 △예산 30% 옛 여천군 배정 △공공기관 여천시 이전 등 6개항을 합의했지만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통합 전보다 재정자립도가 급감했고, 인구도 오히려 줄었다. 통합 전 여천시의 재정자립도는 71.7%, 여수시 45.4%, 여천군은 18.9%였다. 하지만 통합 여수시 재정자립도는 28.3%로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인구도 계속 줄어 통합 당시 33만명에서 29만명으로 감소했으며, 공무원 조직의 분열과 갈등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인사 때만 되면 '과거 10년 전 소속 시군이 어디냐'를 따지고, 인사적체까지 심해져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0년 7월 통합한 창원시(마산, 창원, 진해)의 경우 통합 당시 시청사를 마산 또는 진해 지역에 두기로 합의했지만, 아직도 위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옛 마산, 진해지역 7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강제통합 무효 시민연대' 등을 결성, “주민의 뜻과 배치된 통합은 무효”라며 통합무효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광호 기자